

전남여상, 중기 특성화고 인력양성 우수학교 선정



5·18 제45주년 기념 헌혈 캠페인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5·18 제45주년 기념' 릴레이 헌혈 나눔 캠페인에서 이근배 총장과 주요 보직자, 학생 등이 80년 그날 처럼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KT 노사, 가정의 달 맞이 온정나눔

KT 전남전북광역본부 15일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광주시 북구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10여명의 KT 노사합동 사랑의 봉사단원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2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이남권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KT 노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동구-살레시오여고 합동 금연 캠페인

광주 동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최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일대에서 금연과 절주를 함께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학교 경계선 30m 이내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살레시오여고 학생 및 교직원들 비롯해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도원 등 지역사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살레시오여고 학생들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초·중·고 금연구역 확대(30m)'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에 나섰다.

학생들은 확대된 금연구역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자담배와 음주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의 심각한 담배꽂초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배꽂초 줍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수민 기자



광주창경센터 '5월 창업포럼' 성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광주 동구 '스테이지(STA·G)'에서 열린 '5월 광주창업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전문가 특별 초청 강연 △사회적기업가 초청 강연 △참석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구글코리아 한국 파트너십 총괄 신경준 디렉터가 연사로 나서 '구글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적기업가 초청 강연에서는 ㈜모어댄의 최이현 대표 이사가 '비즈니스 그 이상 : 지속가능성을 향한 패션 기업의 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 효과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컨티뉴 사례를 들어 유용한 정보를 나눴다. 홍승현 기자

중소기업과 긴밀 협력관계 구축 신산업 디지털분야 교육 등 확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5일 전남여상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한다. 지난해 전남여상은 '산학맞춤반', '중

소기업 이해연수', '1팀 1기업 프로젝트', '교내 미니 채용 박람회', '국외 산업체 연수'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남여상은 이번 우수학교 선정으로 사업비 증액 혜택을 받아 신산업 디지털 분야 교육, 맞춤형 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규명 전남여상 교장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특성화고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2024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전남여상 제공

한편 전남여상은 △빛고을혁신학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광주 지역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법무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전문화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가 15일 북구 솔로몬로파크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갑질 선서식과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원봉사자들이 법무보호대상자 및 관계자들과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선서식은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합의회장을 중심으로 공단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최환준 기자

법무보호위원 대상 전문화교육도 병행했다. 자원봉사자 역할, 법무보호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김윤철 소장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현해 가겠다"며 "전문화 교육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레이콘조합, 품질관리 기술세미나

광주전남레이콘공업협동조합은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실무자 품질 능력향상을 위한 '2025년 레이콘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호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이슈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레이콘업계 스스로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며 "레이콘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기점으로 레이콘 산업이 미래 건설환경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이콘 품질의 선진화와 품질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정아 센터장은 "레이콘 조합과 함께 레이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교육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GIST-장성군-문향고-장성고, 인재양성 맞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장성군, 문향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와 함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IST와 장성군, 문향고, 장성고는 고교-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연계 교육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성군의 인재들

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AI 산업 육성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다"며 "GIST가 축적해온 과학기술 지식과 역량, 장성군과 지역 고교의 교육적 자원이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인 가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나주경찰-농협,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협약

나주경찰서는 최근 회의실에서 나주농협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전개한다. 나주=이재순 기자

허영우 나주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을 포함한 나주시민에게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홍보하고 교통안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진 나주경찰서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여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여성친화마을의 성과와 의미를 조명한다.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연대: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세계 60여 개 도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16일 오후 4시30분 전시

오늘 성평등 마을 사례 발표

동 207호에서 열리는 '인권하는 마을, 인권하는 마음' 주제 '마을과 인권' 세션에 참여한다.

임이정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

마을 역량강화 코칭지원사업 전담은 이날 '성평등한 도시는 성평등한 마을로 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마을 사례를 발표, 인권 관점에서 성평등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임이정 전담은 여성친화마을이 여성

과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주민 주도 공동체문화 조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인권의 현장임을 알릴 예정이다. 또 밤길 안전 지도 만들기, 여성 화장실 증설, 돌봄 공간 마련 등 광주 여성친화마을의 노력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는 '생활권 인권'의 실현임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